

Post Graduate Theatre Course 를

마 치 고 와 서

서울대 부속병원 안 난 이

자신이 자청 해서라도 한번 이 기회를 갖고 싶다고 생각은 했으면서도 막상 글 쓰기를 부탁 받았을 때는 거절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유를 대야 한다면 뉴-질랜드 여행 소감을 써 달라고 하셨기에 말입니다.

실은 자신은 생각 했기를 Post graduate theatre course 가 어떤 것인가를 제 자신이 전연 모르고 시작 했던 것이기에 또한 간호계에서 일 하면서 특히 이 분야에 흥미가 있으신 분 그리고 비단 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으로 간직함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코스 책임자에게 몇장의 원고지예다 이 코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으나 그분이 바빴던 탓인지 아니면 저의 지나치게 훌륭한 영어가 그분에게 완전한 이해를 못 드렸던지 여하튼 몇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어코 계층에 넣지 못한채 그 곳을 떠나

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그 미안해 하시던 표정이 지금도 그쳐 신할뿐 결국은 저의 서두름 글 재주가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Post graduate theatre course” 혹은 “Post graduate course in Operating room techniques”라고 하며 약 26 주로써 다음과 같이 26주를 분리해서 각 학생들이 그 기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 a. 일반외과와 신경외과 4주
- b. 흉곽외과와 마취과 4주
- c.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4주
- d.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실 4주
- e. 안과 이비인후과 4주
- f. 밤번 4주 (Staff nurse 로써 2주)
(Sister(책임자)로써 2주)
- g. 다른곳 방문 2주
- h. 희망과 2주 1주씩 2과
이와 같이 분류되며 4주
혹은 2주를 하는 동안 한 환자를

base study로 선택 하되 자신이 직접 조수 들었건 앎들었건 상관 없이 선택 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조수 들 들었으면 더욱 쉽고 이해가 빨리 가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4주 말에 가서 학급에서 한 사람씩 나가서 발표한 후 질문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최소한 한장의 도표를 작성해 오기를 강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말에 가서 또 하나의 간단한 필기 시험을 보며 학생들은 그 기간내에 해당과의 외래나 병실 회진에 참석 하게 됩니다.

이 코스 마지막에 가서는 각자가 희망하는 과에다 1주일씩 해서 2주동안 두 과를 거쳐 예외의 경험을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 끝나기 약 2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제목중에서 assignment 들 받게 되며 이는 학기 말에 제한된 1시간내에 학급에서 발표되며 많은 시간의 공부 들 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도표를 작성해야 되며 자신이 발표한 논제를 충분히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산 사 매의 도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도표는 그 곳에 보관되어 저야 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가져 갈수가 있습니다.

이 논제로써는

1. Sterilization
2. Theatre management
3. Theatre planning

4. Anaesthesia

5. Abdominal or thoracic surgery

6. Plastic Surgery 등으로써 이는 책임자가 우리들에게 분배 해주곤 합니다. 방문 기간에는 대개 방역소, 특수병원, 산소공장, 기계 보류소, 병원물류 공급소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코스를 할수 있는 자격은 6個月 이상 본원이나 혹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방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며 이 코스를 마친 다음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State examination 을 치루게 됩니다. 日字는 毎年 5월과 11月 첫째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행해지며 3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기 마감은 시험 일자를 중심으로 바로 전날에 끝나는 것이 전례였으며 2주 동안의 휴가도 각 학생들에게 허락 되어 있습니다.

시험결과는 6주 내지 8주 후에 나오게 되며 학기중 교과서는 각자에게 배부 됩니다. 이 기간중 가장 열려했고 두려워 했던 것이 바로 State examination 으로 결과를 기다리기 까지에는 너무나도 길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읍니다. 물론 시험에 내용이 어려웠다고 보다는 영어가 내겐 가장 큰 문제였었지요

그리고 학기중 강의는 수술방 감독 (코스 책임자) 각과 의사, 그리고 특별 분야의 책임자 즉 보건원

이나 검사실 기관실 혹은 방역소 등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받게되며 대개는 강의가 주말에 많고 오후를 많이 이용하게 되며 총약 60 시간으로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학생수는 16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개는 그 수를 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강이 코스 소개는 끝났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때는 자신이 이것을 해 나가기엔 너무나도 벅 찰기에 후회도 했습니다만 역시 수술방 공부로써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충분히 찾을수 있었기에 간신히 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제도가 우리와 달라 간호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게 되면 19~20세 정도로 우리 class에는 23~28歲까지가 표준으로 자신도 과히 그들과 별 차이도 없었으면서도 우리식 사고방식으로 접감아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사람을 괴롭히곤 했지요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여 참 즐거운 생활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quiet” 하다는 말을 들곤 했었지요 거야 편하지 않습니까? 원체 한국어를 애용하던 애국심이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현재 간호대학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에 있는 그들은 university 즉 degree course가 아니라 초급대학 간호 학교로써 즉 diploma course를 하고 있으며 이론 보다는 실습이

많고 부지런 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간호학교제도도 다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교육 방법 및 계통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上 下間의 예의범절 책임감 등을 볼 때 동양예의지국이 라는 우리가 무색 할 정도로 예의와 친절을 완전히 갖춘 국민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관념은 누구의 강요나 간섭 없이 최소한 근무 시간 10分전에 도착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며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로 정각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난 하루는 4시 정각에 “Miss Ahn off” 하길래 마침 손에 일하던 것이 있어서 이걸 마치면 가겠다 그랬더니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기어코 마치지 못한채 가게 만들었답니다. 아마 일 시작하던 다음날인 줄로 기억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게 실수를 저질렀던 일도 있지요.

언젠가 흉곽의과 수술방 실습으로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기상종이나 싸이렌 소리가 없는 이곳 기숙사 각자가 시간을 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숙사의 혜택을 받던 나를 깨워 주시는 사감 선생님 혹은 아주머니, 낮던 때는 싸이렌 소리 이러한 모든편을 잊지 못하고 그곳까지 가져 갔었

입니다. 그래도 몇 개월은 실수 없이 위험한 생활을 계속 할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젠 기어코 위험을 포면치 못할 날이 오고야 말았읍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Telephone Miss Ahn” 하는 소चे 하는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에 “What’s the time?” 하는 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짹 짹 놀란 나는 전화실 까지 뛰어간듯 하나가슬이 두근 두근 하고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나와야지요. 그래도 진정하려 애쓰면서 인사도 다 잊어 버리고 무턱대고 “Hel-lo” 하고 떠안 떠엄…………

그때가 오전 8시 내가 출근해있어야 할 시간이였읍니다. 전화 받은 지 약 5분후에 유니폼을 갖춘 나는 물론 세수도 하지 않은채 물칠만 하고 수슬실 감독 즉 이 코-스 책임자앞에 나타났었지요. 엷은 미소 그러나 날카로운 눈초리에 여전히 긴 눈섭은 그 큰 눈 위로 향해있는 것이 그들의 독특한 耨를 증경 주고 있었읍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열적은 나는 무설다기 보다는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에 몇 적은 미소를 지었다기 보다는 일그러진 표정 자신이 몸가눌바를 몰랐읍니다. 그러나 도망도 숨을 수도 없었던 나는 “Good morning sister. I really beg your Pardon.” “Shall I Pinch you?” “—” I am sorry shall I work till 5 pm?

물론 4시 pm이 퇴근시간 이었으나 나로써는 다른 어떤 길로도 내가 보상 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All right then Miss Ahn” 하는 소리에 “Thank you sister” 함과 동시에 달려온 나는 어느때 보다 더 부지런히 일 거러를 찾아 하곤 했었읍니다. 이것이 外國人 이라는 명칭이 갖다준 혜택이었겠읍니다만 난 자명중 살것을 결심했읍니다. 그러나 오후 5시면 상가문을 닫는 그곳 어느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일이 있은지 삼일 후에 얻게 되었으며 지금도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 었읍니다. 10am이 우리의 tea time, 9시30분이 학생들의 tea time이였읍니다. 9시가 조금 지나서 감독은 내게 가까이 와서 “Would you like to go and have a cup of tea with sandwich, you missed breakfast, won’t you?”—

“Thank you very much sister Morgan” 그 자리에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었읍니다.

이토록 친절하고 협조심이나 동정심이 많은 韓人성을 가진 이들이 어째서 일까 하는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나라 역사에 대해선 이미 그곳을 다녀오신 어느 분의 소개트 다시겠지만 몹씨도 게으르고 똥똥하고 눈이 유난하게 큰 시커먼 살결을 지닌 소위 우리가 들은 토

인이라고 할까요. 역시 원시인의 생활로써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던 **maori**라는 족을 무찌르고 새로운 백인의 세계를 이룬것이 지금으로부터 백이십년의 남짓한 역사를 지닌 이곳, 그간 우리와 같이 단일민족으로 자라온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민오는 각종의 사람들로 지금은 제법 큰 국가가 되었지만 역시 땅은 넓은데 비해 인구는 겨우 서울 인구 정도로써 이백 오십 육만이 1963년도에 발표된 통계 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삶을 위한 투쟁도 싸움도 세각기 노력만 하면 모두가 우리 나라 종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자연이 들에게 따라오는것이 선량하고 다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게다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물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 바로 이런 곳을 가르쳐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긴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뉴-질랜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정도는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겠으나 실제에 가서 그 질적인 문제를 겪 주어 볼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곳에 풍여서 살고있는 인종중에는 영국인을 주로 하여 폴란드, 스코트란드, 독일, 불란서,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물론 **maori** 그의 다소의 이태리 사모

아(Samoa) 통아(Tonga) 피지(Fiji) 유고스라비아 등의 인종들이 살고 있으며 몇명의 베트남 학생들과 타일랜드 그리고 14명 정도의 한국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각 곳에서 풍여 들었으나 여전히 적은 인구에 많은 관광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화산이 유명했던 이곳 지금도 물이 그냥 끓으며 진흙이 그대로 끓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으로써 유명한 것은 **maori**라는 원주민의 회의 장소나 촌장의 집 감옥 혹은 그당시 백인과 싸울때 쓰던 배 갑은 것들을 그대로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11個月 정도 밖에는 머물지 않았으나 언어의 불편 이외에는 정말 보수없이 베풀어 주던 그들의 호의와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와 양떼들 그리고 마지막 비행장에서 비내리는 창밖을 뚫가 허전하게 손을 흔들면서 발걸음을 비행기 탑승기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값없는 나에게 팔이 모자라라하고 펼쳐 보이면서 “Bye” “Bye”하던 다정하신 여려분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가고 싶다는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삭이듯 불에다 입을 맞추면서 “God bless you” 하던 다시 듣고 싶은 음성 들이랍니다.